

# 대학 교양 일본어학습에 관한 기초조사\*

- 서울소재 S대학의 교양 일본어학습자를 중심으로 -

이선희\*\*  
shlee@sw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1 교양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학습배경        |
| 2. 선행연구      | 4.2 교양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학습에 관한<br>신념 |
| 3. 연구방법      |                                |
| 4. 분석결과 및 고찰 | 5. 나오며                         |

주제어: 교양일본어(Japanese in liberal arts), 기초일본어(Basic Japanese), 일본어학습(Japanese Learning), 학습  
동기(Learning Motivation), 신념(Belief)

## 1. 들어가며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세계 각국에서의 일본어교육 최신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3년에 한번 「일본어교육기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어학습자 수는 55만 6237명으로 이전(2012년 실시, 84만 187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의 감소와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한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교육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일본어 교육 현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일본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 자율화 및 다양화를 지향한 신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양 교과목 수가 폭발적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본 논문은 2016년 10월 29일 일본 APU대학에서 개최된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4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가필·수정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1) 일본국제교류기금 2015년도 일본어교육기관조사결과

<http://www.jpf.go.jp/j/project/japanese/survey/area/country/2016/korea.html>

으로 늘어났지만(박윤희 2012:14) 일본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 강좌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필자 소속 대학의 경우 2013년 총 8개 강좌가 운영되었던 교양일본어 수업이 2016년 2학기에는 5개 강좌만이 개설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대학의 일본어 교육 현장은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필자가 소속된 대학의 일반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기초일본어1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양 일본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교양 일본어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삼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지금까지 교양 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로는 盧姓鉉(2014), 박경애 외 (2013), 박윤희(2012), 방극철(2015), 조선영(2016)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盧姓鉉(2014)에서는 대학 교양일본어(초급)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동기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는데, 교양일본어 수강생의 과반수 이상은 이미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며, ‘다른 외국어에 비해 단기간에 학습하기 쉬운 것 같아서’,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교양 일본어를 수강한다고 밝힌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수강생의 성별, 계열, 일본어학습 경험 유무에 따른 수업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수강동기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는 박경애 외(2013)에서는 한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와 교양으로서 일본어를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교육의 상황적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일본·일본인·일본어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박경애 외(2013)의 연구 결과는 다음의 4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1) 학습 동기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좋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내발적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최종 학습 목표에 있어서 전공생은 원어인 레벨이 될 때까지, 교양수강생은 여행 시 곤란하지 않을 정도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전공생과 교양 수강생 모두 경제적인 관점이나 국제화와 관련된 선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향후 아시아 리더로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3) 일본인에 관해서는 전공생과 교양 수강생 모두 질서를 잘 지킨다와

2) [기초일본어1] 01분반, 02분반, 03분반, 04분반 및 [기초일본어2] 01분반이 개설된 상황임. 이 두 강좌 모두 초급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나 실제 수강생 가운데는 중·상급 수준의 학습자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긍정적인 평가 뿐 아니라 이중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4) 일본어 학습에 관해서는 좋아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인식이 높았다.

박윤호(2012:14)에서는 대학 교양일본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1) 과목 등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인 편의주의로 인한 수강 기회 축소 2) 교과와 내용적인 면과 제도적인 보완 미흡 3)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교수학습법의 부재 4) 강사나 교재, 교육목표 테스트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료 튜터링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여 대학 교양 일본어교육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극철(2015)에서는 한국의 교양 일본어교육을 위기로 진단하고 교양교육의 질을 혁신하여,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능동적 일본어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 다음의 6가지를 들고 있다. (1) 교양교육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여 대학에서 교양일본어(제2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도모, (2) 학습동기 부여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함양, (3) 의사소통 (communication) 역량 강화, (4) 제2외국어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5) 교양교육의 평가 환류시스템 구축(강의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이다.

조선영(2016:85)에서는 4년제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일본관련 강좌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어 관련 강좌는 대학의 기초 영역, 혹은 학문의 기초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교양 일본어수강자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대학에서의 교양 일본어교육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교양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일본어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의 교양 일본어 교육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강생의 니즈를 조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형태로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교양으로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관한 신념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필자가 소속된 대학의 일반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기초일본어1』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양일본어 수강생들의 일본어 학습동기는 무엇이며 일본어학습 전반에 대하여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서 향후 교양 일본어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삼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반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기초일본어1 수강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동기 및 일본어 학습에 관한 신념, 일본·일본어·일본인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필자가 담당한 기초일본어1 01분반(35명)과 다른 2명의 교수자가 담당한 기초일본어1 02분반(35명), 기초일본어1 03분반(33명)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글다스로 작성한 설문지를 수강생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결과<sup>3)</sup>, 총 89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설문조사는 개강 직후인 2016년 9월5일~9월13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설문지 항목 작성에 있어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일본·일본어·일본인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박경애 외 (2013)을 참고로 하였으며 교양일본어 수강생들의 일본어학습에 관한 신념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설문지는 조사협력자의 개인 배경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교양일본어 수강생들의 일본어 학습동기와 일본어 학습에 대한 신념을 분석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4. 분석결과 및 고찰

#### 4.1 교양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 학습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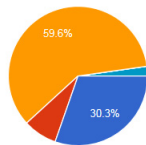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일본어 학습경험 및 학습기간, 수강동기, 일본어 학습목표 등을 중심으로 교양 일본어 수강생의 일본어 학습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림1>은 기초일본어1을 수강하고 있는 교양 일본어 수강생의 일본어 학습경험 및 학습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일본어1 수강생 중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운 수강생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독학 등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10%정도였다. 반면 기초일본어1 전체 수강생 중 약 30%만이 일본어를 처음 접한 학습자였다. 다음으로 항목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를 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이 약 43%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초일본어1을 수강하고

3)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기초일본어1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2명의 교수자에게 설문조사의 취지 및 설문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조사 협력을 의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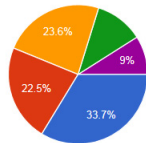
있는 학습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뿐 만 아니라 이미 일본어를 1년 이상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대학에서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 교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수강생들 간의 외국어 능력에 있어서의 수준차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영(2017:16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초일본어 과목의 수강 대상은 히라가나조차 모르는 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 일본어를 접하는 학생이 이미 일본어를 학습한 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경우에는 성적 평가에 대한 불만 및 자신감 상실, 나아가 일본어 학습 의욕 감소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김종희(2013)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수강생의 일본어능력 수준차를 고려한 강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수자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대학교육행정과의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기초일본어>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다	27	30.3%
독학으로	7	7.9%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53	59.6%
학원에서	0	0%
인터넷 강좌로	0	0%
기타	2	2.2%

2. 일본어 학습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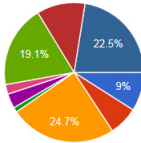
이번이 처음이다	30	33.7%
6개월 미만	20	22.5%
6개월-1년	21	23.6%
1년-2년	10	11.2%
2년-3년	8	9%
3년이상	0	0%

<그림1> 일본어 학습경험 및 학습기간

<그림2>는 수강생의 기초일본어1 과목의 수강동기를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일본어1 수강생 가운데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과 같은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24.7%)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22.5%), 일본여행을 하기 위해서(19.1%)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외국어에 비해서 배우기 쉬워서라고 답한 수강생이 11.2% 있었으며 취업이나 학점을 따기 위해서 기초일본어1을 수강한다고 답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같이 최근 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盧姪鉉(2014)은 학습자의 수강동기가 수업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수강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과목 운영 및 편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기초일본어>를 수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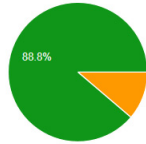


일본어를 좋아해서	8	9%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6	6.7%
일본문화(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관심이 있어서	22	24.7%
주위의 권유로	1	1.1%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	3.4%
유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	0	0%
학점을 따기 위해서	2	2.2%
일본여행을 하기 위해	17	19.1%
다른 외국어에 비해 배우기 쉬워서	10	11.2%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20	22.5%

### <그림2> 교양 일본어 수강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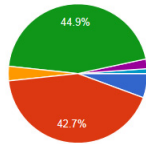
<그림3>은 기초일본어1 수강생의 일본어능력 및 일본어 학습목표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항목4에서와 같이 현재 자신의 일본어 능력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하]라고 답했으며 11.2%만이 [중]이라고 답하였다. 일본어 학습목표에 관해서 묻는 항목5에서는 여행을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44.9%) 혹은 일상회화가 가능해 질까지(42.7%)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편,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어로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라고 답한 수강생이 있었다. 이러한 수강생의 일본어 학습목표와는 달리 현재 필자 소속 대학의 경우 기초일본어1, 기초일본어2 외에 일본어 관련 과목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초급 수준의 일본어능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수업 이외에 중급 이상의 일본어능력 양성을 위한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영(2016:89)에 의하면 중상급 이상의 일본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본어를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필자 소속 대학에서도 기초일본어1, 기초일본어2 과목을 수강한 후에 일문과를 복수전공으로 택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면 교양 일본어학습자의 학습동기 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현재 자신의 일본어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상	0	0%
중	10	11.2%
하	79	88.8%

5. 일본어를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싶습니까?



원어민 수준이 될 때까지	5	5.6%
일상회화가 가능해질 때까지	38	42.7%
일본어관련 자격증을 딸 때까지	3	3.4%
여행을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40	44.9%
현재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을 딸 때까지	2	2.2%
기타	1	1.1%

6. 5번에서 [기타]라고 답하신 경우, 자신의 일본어 도달 목표를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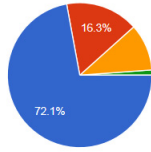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어로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그림3> 일본어능력 및 일본어 학습목표

<그림4>는 언어의 4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기초일본어1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기초일본어1 수강생들은 언어의 4기능 가운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순서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항목8에 대한 답변에서 말하기, 듣기 중심의 회화 수업이라고 답한 수강생이 과반수(5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말하기-듣기 뿐 만 아니라 언어의 4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수강생은 33.7%였다. 그러나 실제 기초일본어1 수업은 초급 수준의 일본어 문법 및 문형, 어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활동보다는 교수자의 강의가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학습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이에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 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의 말하기-듣기 활동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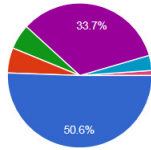
4) 필자 소속 대학의 경우 2014년도 이전에는 일본어회화 수업을 개설했었으나 수강생이 부족하여 폐강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일본어회화 수업이 개설되지 못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만이 회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수강생들의 편견과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7.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4기능(말하기-듣기-읽기-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하기	62	72.1%
듣기	14	16.3%
읽기	9	10.5%
쓰기	1	1.2%

8. <기초일본어> 수업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하기, 듣기 중심의 회화 수업	45	50.6%
읽기, 해석 중심의 독해 연습	5	5.6%
쓰기 중심의 작문 연습	0	0%
일본어 문법 및 어휘	5	5.6%
언어의 4기능(말하기-듣기-읽기-쓰기)을 종합적으로	30	33.7%
일본문화 관련 사항	3	3.4%
기타	1	1.1%

9. 8번에서 [기타]라고 답하신 경우, <기초일본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문법수업만 하면 흥미가 너무 떨어져서 회화수업이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화와 문법 중 고를 수 없는 것 같다...

<그림4> 언어의 4기능과 희망하는 수업 시 요청 사항

## 4.2 교양 일본어학습자의 일본어학습에 관한 신념

본 절에서는 교양일본어 수강생의 일본어학습에 관한 신념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1>은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의 필요성,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활동, 수업 방식 등에 관한 수강생의 신념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항목 1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일본어1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과반수이상(70.4%)은 일본어학습에 있어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목12에서 짝지어 말하기와 같은 학습 활동이 일본어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답한 수강생은 총 46.1%였다. 즉 기초일본어1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는 필요하지만 짝지어 말하기와 같은 활동이 일본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다음으로 항목1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수업방식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의 같았다.



<표1>교과서, 학습 활동, 수업 방식에 관한 수강생의 신념

단위:명(%)

항 목	5	4	3	2	1
11. 일본어(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는 필요하다.	14 (15.9)	48 (54.5)	25 (28.4)	1 (1.1)	0 (0)
12. 짝지어 말하기(pair-works)와 같은 학습활동은 일본어 학습에 효과적이다.	12 (13.5)	29 (32.6)	42 (47.2)	3 (3.4)	3 (3.4)
13. 나는 강의를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자들 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수업 방식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6 (6.7)	21 (23.5)	32 (36.0)	26 (29.2)	4 (4.5)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 <표2>와 <그림5>는 일본어 및 일본어 학습능력에 관한 수강생의 신념을 조사한 결과이다. 항목14에서 일본어는 어려운 언어라고 답한 수강생은 37.1%인데 반해 [어느 쪽도 아니 더]라고 답한 수강생은 47.2%였다. 이와 같이 교양 일본어 수강생의 과반수 이상은 일본어를 어려운 언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항목15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양 일본어 수강생의 70% 이상은 자신이 일본어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항목2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일본어학습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믿고 있는 학습자는 7.9%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항목33에서 수강생의 대부분은 일본어를 잘 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그림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만약 매일 1시간씩 일본어를 공부한다면 일본어를 아주 잘하게 될 때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한 수강생의 비율이 46.1%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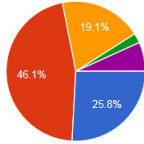
<표2> 일본어 및 일본어 학습능력에 관한 신념

단위:명(%)

항 목	5	4	3	2	1
14. 일본어는 어려운 언어이다.	1 (1.2)	32 (36.0)	42 (47.2)	14 (15.7)	0 (0)
15. 나는 일본어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는다.	12 (13.5)	53 (59.6)	23 (25.8)	1 (1.1)	0 (0)
23. 나는 일본어 학습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0 (0)	7 (7.9)	32 (36.0)	42 (47.2)	7 (7.9)
33. 나는 일본어를 잘하고 싶다.	30 (33.7)	52 (58.4)	7 (7.9)	0 (0)	0 (0)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2. 만약, 매일 1시간씩 일본어를 공부한다면 일본어를 아주 잘하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1년 이내	23	25.8%
1~2년	41	46.1%
3~5년	17	19.1%
5~10년	2	2.2%
하루에 1시간씩해서는 능숙해지지 않는다	6	6.7%

<그림5> 항목22의 결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양 일본어를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은 일본어를 그다지 어려운 언어는 아니며 자신이 일본어 습득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어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면 2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3>은 일본어 학습방법 및 학습환경에 관한 수강생의 신념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항목16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 일본어 수강생의 대부분은 좋은 발음으로 일본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일본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목18의 결과에서 제대로 일본어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어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강생은 거의 없었다.

<표3> 일본어 학습방법 및 학습환경에 관한 신념

단위:명(%)

항 목	5	4	3	2	1
16. 좋은 발음으로 일본어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17 (19.3)	49 (55.7)	20 (22.6)	2 (2.3)	0 (0)
17. 일본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	19 (21.6)	53 (60.2)	14 (15.9)	2 (2.3)	0 (0)
18. 일본어를 학습할 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어로 말해서는 안 된다.	1 (1.1)	1 (1.1)	4 (4.5)	54 (60.7)	29 (32.6)
19. 일본어는 일본에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	6 (6.7)	20 (22.6)	29 (32.6)	32 (36.0)	2 (2.3)
20. 일본어는 일본인 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2 (2.3)	8 (9.0)	28 (31.5)	44 (49.4)	7 (7.9)
21. 나는 일본인과 만나서 일본어를 연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5 (5.6)	24 (27)	39 (43.8)	17 (19.1)	4 (4.5)
24. 일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휘를 습득하는 것이다.	11 (12.4)	62 (69.7)	16 (16.9)	1 (1.1)	0 (0)

25. 일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을 배우는 것이다.	3 (3.4)	32 (36.0)	40 (44.9)	13 (14.6)	1 (1.1)
26. 일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많이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37.1)	50 (56.2)	5 (5.6)	1 (1.1)	0 (0)
29. 일본어를 듣고 이해하기 보다는 말하는 것이 간단하다.	2 (2.2)	23 (25.8)	32 (36.0)	31 (34.8)	1 (1.1)
30. 일본어 음성 파일을 듣고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13 (14.6)	54 (60.7)	21 (23.6)	1 (1.1)	0 (0)
31. 일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3 (3.4)	32 (36.0)	39 (43.8)	15 (16.9)	0 (0)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항목19와 항목20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수강생의 비율은 29.3%였으며 일본어는 일본인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한 수강생은 11.3%에 불과하였다. 또한 항목21에서 수강생 가운데 일본인과 만나서 일본어를 연습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6%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를 일본에서 공부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 비율은 높지 않으며 나아가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일본인교사 및 일본인 친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의 비율 역시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대학에서 실시되는 교양 일본어의 경우, 한국인 일본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本田(2016)에서는 한국 4년제 대학의 교양 일본어에서 한국인 일본어교사와 일본인 원어민교사가 단독으로 담당하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교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수업내용에 있어서 일본인 원어민교사에게는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기대하는데 반해 한국인 일본어교사에게는 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아울러 최근에는 일본어학습에 효과적인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SNS의 확산 등으로 손쉽게 일본어를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어학습자를 둘러싼 학습환경의 변화가 일본어 학습방법 및 학습환경에 관한 신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항목24와 항목2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일본어 수강생의 대부분은 일본어학습에 있어서 어휘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문법이 중요하다고 한 수강생은 40%를 밀돌았다. 마지막으로 항목26, 항목29, 항목30, 항목3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를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많이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음성파일을 듣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모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한 수강생 역시 40%를 밀돌았다.

## 5.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교양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배경 및 일본어 학습에 관한 신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양 일본어 수강생의 과반수 이상은 이미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습자로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를 배운다고 답한 학생이 많았다.
- 2) 현재 자신의 일본어 능력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하]라고 답했으며 일본어 학습 최종목표에 관해서는 여행을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혹은 일상회화가 가능해질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습자가 많았다.
- 3) 교양 일본어 수강생들은 언어의 4기능 가운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 기초일본어1 수업은 말하기, 듣기 중심의 회화 수업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
- 4) 교양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일본어를 그다지 어려운 언어는 아니며 자신이 일본어 습득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어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면 2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 5) 일본어를 일본에서 공부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나아가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일본인 교사 및 일본인 친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의 비율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았다.
- 6) 일본어학습에 있어서 어휘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강생이 많았으며 일본어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많이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음성파일을 듣고 연습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금후 교양 일본어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교양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배경 및 일본어학습에 관한 신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많은 대학의 다양한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연구결과를 실제 대학 교양 일본어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이 금후의 연구 과제이다.

**【참고문헌】**

김중희(2013)「수준별 교양일본어 수업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일어일문학연구』57, 대한일어일문학회, pp.163-178

박경애·오현정·脇山尚子·高木千鶴(2013)「일본어 학습동기 및 일본·일본인·일본어에 대한 인식조사-한국대 학생을 중심으로-」『日語日文學研究』84, 한국일어일문학회, pp.125-141

박윤호(2012)「대학 교양일본어교육의 한계와 동료튜토링 설계 및 운영 사례 연구」『日本語教育』59,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9-22

방극철(2015)「대학에서 교양 일본어(제2외국어) 교육 개선을 위한 실천적 제안」『日本語教育』74,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5-26

조선영(2016)「교양일본어 강좌의 현황에 관한 일고찰-개설영역 및 과목명을 중심으로-」『대학교양교육연구』제1권1호,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pp.79-92

盧姪鉉(2014)「受講動機が授業満足度に及ぼす影響—大学の『教養日本語』の趣向性を対象にした調査結果に基づいて—」『日本語学研究』39, 한국일본어학회, pp.71-82

本田美保(2016)「教養日本語における学習者の期待要素-母語話者教師と非母語話者教師を対象として-」『日本語教育研究』第37輯, 韓国日語教育学会, pp.177-195

---

논문투고일 : 2017년 10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10월 19일  
 1차 수정일 : 2017년 11월 16일  
 2차 수정일 : 2017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7일

---

**< 要 旨 >**


---

### 대학 교양 일본어학습에 관한 기초조사

- 서울소재 S대학의 교양 일본어학습자를 중심으로 -

이선희

본 논문에서는 교양 일본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배경 및 일본어학습에 관한 신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양 일본어 수강생의 과반수 이상은 이미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학습자로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를 배운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 2) 현재 자신의 일본어 능력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하]라고 답했으며 일본어학습 최종목표에 관해서는 여행을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혹은 일상회화가 가능해 질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 3) 교양 일본어 수강생들은 언어의 4기능 가운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 [기초일본어1] 수업은 말하기, 듣기 중심의 회화 수업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
- 4) 교양 일본어를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은 일본어를 그다지 어려운 언어는 아니며 자신이 일본어 습득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어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만큼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면 2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 5) 일본어를 일본에서 공부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나아가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일본인 교사 및 일본인 친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의 비율 역시 높지 않았다.
- 6) 일본어학습에 있어서 어휘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강생이 많았으며 일본어 학습방법에 있어서는 많이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 음성성과 파일을 듣고 연습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A Basic Research on Learning Japanese as a Liberal Arts Course at a University

- Focused on students who learn Japanese as a liberal arts course at S university in Seoul -

Lee, Sun-He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students who attended a Japanese language class as a liberal arts course at a university in order to examine their background and perception of learning Japanes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who attended a Japanese language clas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 of learning Japanese before,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y started to learn Japanese as they were interested in Japanese culture was the highest.
- 2) Most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 level of their Japanese language skills was low. To the question about their final goal of learning Japanese, the number of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y wanted to learn Japanese until they can feel comfortable when traveling to Japan or have a daily conversation in Japanese was the highest.
- 3) Most of the students thought that speaking among 4 language skills is most important, followed by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hoped the "Basic Japanese 1" class was a conversation class focusing on speaking and listening was the highest.
- 4) Most of the students viewed that Japanese is not a language that is difficult to learn. They also thought that if they continued to study Japanese everyday even without any special talent for learning Japanese, they could improve their Japanese skills in 2 years as long as they wanted to be good at Japanese.
- 5) The share of students who thought that they should study Japanese in Japan was not high, and the share of those who thought that they need Japanese teachers or friends to study Japanese was also not high.
- 6) Many students viewed that vocabulary acquisition is important to learn the language, and that it is important to repeat and practice a lot, and listen to audio files and practice in learning Japanese.